

“국가유공자 보훈, 애국심 원천... 헌신한 분들 일상 지키는 것”

文 대통령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통해 애국 가치·정의 강조
군 급식문제·병영문화 폐습 사과
“국민께 송구... 보훈 바로 잡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애국심 위에 서 있다. 이제 애국은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됐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고 공동선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의 한결같은 원동력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라며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화,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인들과 함께 감염병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추념사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 후 묵념하고 있다. /뉴스1

통해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영령들께 깊은 존경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한 듯 “코로나 극복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견뎌주시는 국민들, 방역과

백신 접종 현장에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의료진 역시 이 시대의 애국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코로나와 기후 위기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지구 차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제 애국심도,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을 고려한 듯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 “국경을 넘은 인간애를 실현한 아름다운 청년”이라며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인 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점, 참전용사 유해 발굴 확대,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 등 그동안 추진하거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최근 논란인 군 급식과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안마 이주노동자 원 톡또 님이 지난 2018년 세상에서 떠날 당시 국민에게 생명을 나눠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는 미안마 국민에게 변함없는 연대와 우애의 마음을 보낸다. 5월 광주가 마침내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듯, ‘미안마의 봄’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쿠팡, SSG 등 ‘E-커머스’ 유통기술 한눈에

산업부 제1회 디지털유통대전

국내 비대면 유통 기술·추세 공유
E-커머스 솔루션 IR 피칭 대회 개최

쿠팡, SSG 등 ‘E-커머스’ 선두주자들의 디지털 비대면 유통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국내에서는 처음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국내 주요 유통사와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모여 유통 관련 기술과 추세를 공유하고, 차세대 유통 시장을 선도할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쿠팡, SSG닷컴 등 국내 주요 유통사는 현장에서 운용 중인 디지털 서비스와 상용화를 앞둔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현재 150여개의 전시 가능한 부스를 준비 중이다.

실제 관람객이 디지털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데일리 라이프 특별관’도 운영한다.

디지털 기반 기술을 E-커머스에 적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제품,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E-커머스 솔루션 IR 피칭 대회’도 열린다.

이 대회에는 예비 창업자, 대학생 등 약 80개팀이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2개팀을 선정한 뒤 유통대전 행사에서 본선 경연과 전시회를 진행한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팀), 후원 기관상(7팀), 인기상(2팀), 특별상(1팀) 등을 선정해 상금과 함께 준다.

유통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디지털 유통 혁신 콘퍼런스’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다.

코트라는 이 기간 국내 유통사와 스타트업, 예비창업자와 국내외 바이어 간 네트워킹, 투자 매칭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를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

산업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6월 디지털 유통대전 행사를 열 계획이다.

올해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디지털 유통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산업부, ‘재제조’ 기업 육성 나선다

중소 35곳 선정, 2600만원씩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사용한 제품을 다시 만들어 쓰는 ‘재제조’ 기업 육성에 나선다. 국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 35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제조 기업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기업 35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탄소절감 효과가 큰 탄소중립 핵심산업 중 하나로 정부는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재제조 기업의 품질·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기술·공정 도입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35개 기업에 재제조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품 품질·환경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10개 기업에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 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에는 1년간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재제조 기반의 제품 서비스 신사업 발굴·실증 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2개 기업을 뽑아 사업화 문제점을 도출한 뒤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수요·공급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고용부 “워크넷 통해 화상상담 받으세요”

자체 화상시스템 설치

코로나19 이후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화상 면접, 비대면 채용 상담 등 정부 취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들이 코로나19에도 안심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정부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취업 상담과 기업 채용이 가능한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워크넷에서 고용센터 상담사가 구직자와 화상 상담을 하거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화상 연결을 해 면접을 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개발한 화상 시스템으로 면접 지원이나 알선 상담을 해 왔는데 이달부터 워크넷에 자체 화상 시스템이 설치된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도 고용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집단상담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취 프로그램과 청년층 직업 지도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비대면으로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 청년층, 성인 구직자, 취업 계층 등 대상별 ‘소그룹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안전보건공단, 장시간 노동자 대상 건강진단 비용지원

1.5만명 선정, 1인당 약 19만원 지원

경비원, 택배기사 등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큰 노동자들이 약 19만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은 6일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고 신청한 노동자들 중 약 1만5000명을 선정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총 32

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노동자 1인당 약 19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장초음파,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등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정밀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심층건강진단 이후 주기적인 건강상담도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고용직 포함) 가운데 고혈압과 비만 등 뇌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다.

공단은 경비원, 택시·버스기사, 택배기사, 배달 종사자와 같이 야간 근무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직종의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7일부터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종=원승일 기자